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금속노조, 현대중공업·대우조선 EU 기업결합심사에 개입...영향은?

전국금속노동조합(금속노조) 위원장이 최근 EU(유럽연합)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'제3자 지위'를 부여받았다고 알려짐. 그러나 '제3자 지위'는 EU에서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됨. (뉴스1)

## Competition heats up as engine designers adapt for future fuels

MAN과 WinGD가 가스추진 엔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. MAN사는 M-type electronically controlled gas-injection(ME-GI)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고, WinGD사는 two stroke, low-speed 추진 시스템 X-DF를 개발했다고 알려짐. Qatar Petroleum이 발주할 LNG선을 두고 두가지 방식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Adnoc set to retender huge Abu Dhabi offshore sour gas project

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(Adnoc)가 수 주 내로 15억달러 이상 규모의 Dalma offshore sour gas 프로젝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. 관계자들에 따르면, 곧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계약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됨. Adnoc는 올해 초 해당 프로젝트 관련한 2개의 핵심 EPC 계약을 취소한 바 있음. (Upstream)

## 세진중공업 LNG 운반선용 화물탱크 초도품 출하

세진중공업은 24일 울산 본사 선적장에서 지난해 8월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수주한 3만m³급 LNG 화물 탱크 초도품에 대한 출하 기념식을 했다고 보도됨. 이번에 제작 공급하는 LNG 화물 탱크는 노르웨이 국적의 크누센(KNUSEN)사가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. (뉴스1)

## Charterers begin to gain upper hand as VLCC rates plunge 30%

아시아지역으로 향하는 VLCC(초대형유조선) spot 운임이 약 28,000달러/일일(-30%)정도 하락했다고 보도됨. 한 달 전 운임 대비 -45% 하락했으며, 수에즈막스탱커의 경우 -21% 하락한 5,113달러를 기록했고, 아프리카막스탱커는 3,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현대일렉트릭, 한전과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

현대일렉트릭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'가스절연변압기 예방진단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'을 체결했다고 발표함. 현대중공업 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와 예방진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보도됨. (아이뉴스24)